

# 가정의 달 실버 문화축제 가득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 · 원광효도마을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효 콘서트 · 문화활동 추진

효 문화 도시 익산시 곳곳에서 가정의 달을 맞아 다양한 '효 콘서트'가 펼쳐진다. 11일 시에 따르면 5월 어버이날 등 가정의 달을 맞아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과 익산시니어클럽에서는 어르신들의 헌신과 사랑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효콘서트'가 열렸다.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관장 김병기)에서는 KGN금강방송과 함께 어버이날 행사 및 청춘 효 콘서트를 11일 이리신광교회 그레이스홀에서 개최했다. 노인일자리 참여자 2,000여명이 참여하는 이날 행사에는 어버이날 기념행사과 함께 아모르파티의 김연자를 비롯해 전원주, 박일준, 문초희 등 유명 연예인이 대거 출연해 어르신들에게

이 밖에도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문화생활 장려를 위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서는 야외 활동 공연관람, 각종 문화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노인일자리 참여자 문화활동은 코로나19로 진행되지 못하다가 2022년부터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하에 추진하고 있으며, 수행기관에서는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들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문화활동을 진행하고 있어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시는 노인일자리 문화활동을 추진하는 참여기관에 문화 활동 시 음주 행위 금지 및 어르신의 안전대책에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전북 지역의 홀로그램·XR 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익산을 방문했다.

## “후속사업 추진에 긍정적 신호탄”

과기부, 홀로그램·XR 사업 현장소통 위해 익산 방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전북 지역의 홀로그램·XR 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익산을 방문했다.

오용수 소프트웨어정책관은 11일 XR 소재·부품·장비 개발지원센터,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센터에 방문해 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기관·기업의 현안을 청취했다.

시는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센터를 기반으로 기업의 홀로그램 기술 제품 연구개발과 콘텐츠 제작 지원 등 사업영역 확대를 돕고 있으며, 'XR소재·부품·장비 개발지원센터'는 홀로그램,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등을 포괄 실험콘텐츠 산업의 융복합 비즈니스 매칭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날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센터에

는 정현을 시장이 함께 자리해 익산시가 5년 동안 추진한 홀로그램 사업의 성과와 홀로그램 기술 사업화 실증사업의 추진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정현을 시장은 “익산은 국가 홀로그램 사업의 중심지로서 2019년부터 5년 동안 홀로그램 산업 생태계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고, 이제는 후속사업으로 그간 수행한 R&D 성과물의 실증 및 사업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과기부의 현장 방문이 후속사업 추진에 긍정적인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홀로그램 후속사업 추진을 위한 2024년 ICT 신규사업 사전적격성 심사를 10일 마쳤으며, 국가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 군산시는 중2, 스스로 계획세워 장학금 받는다

교육공약사업... 중학생 자기계발 연수 '자기신청 장학금' 추진

'다함께 배우는 교육도시'로 시정목표를 세운 군산시가 교육공약사업 1호인 '공부의 명수' 단정에 이어 중학생 자기계발연수를 지원한다.

시는 민선8기 교육공약사업으로 중학생 자기계발을 지원하는 '자기신청 장학금'을 오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기신청장학금은 군산 내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스스로 탐구영역을 정해 계획을 수립하면 탐구연수비를 최대 10만원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분야에서 실천적 행동을 통해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

기 위해 실시된다. 탐구연수비는 군산시방사품점 모바일로 지급되며, 계획상 타지역 사용이 명백한 경우에만 현금 지급한다.

시는 올해 총 2천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으로, 총 4기수로 나눠 기수별 500명씩 지원할 계획이다. 1기는 이번 달 15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2~4기는 각 오는 7월, 9월, 11월에 모집할 예정이다. 신청분야는 인문, 과학, 예체능 인성, 자유주제 등 5개로 개인이 신청하는 1인탐구형 동아리 구성원 등이 신청하는 모둠탐구형(5인이하)이 있다. /군산=이재춘 기자

## 익산시, 내년 국가예산확보 위한 대응계획 논의

익산시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전략을 모색하는 등 중앙부처 예산안 반영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28일 정현을 시장 주재로 세종사에서 국가예산 현장 전략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이날 11일 전대식 부시장 주재로 2024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현황과 대응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시는 5월 말까지 부처별 예산편성이 완료되는 만큼 국·소·단장을 중심으로 중앙부처 방문·설명에 속도를 내어 국비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전



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예산 반영 동향을 수시로 파악해 미온적이거나 부정적인 사업들은 논리를 보완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며, 긍정적인 사업들은 타당성을 보강해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또한 세종사무소를 중심으로 김수홍·한병도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요 중점사업으로는 △국립 석재산업 지원센터 건립 △백제왕궁 금마저 역사문화공간 조성 △산재전문병원 건립 사업 △수소·전기차 중대형 핵심부품 비파괴 3D안전검사 플랫폼

## 군산 말도·명도·방축도, K-관광 섬 도약설명회

군산시는 고군산군도 말도, 명도, 방축도를 관광 콘텐츠와 K-컬처를 융합한 대표 관광 섬으로 특화 조성하는 가고 싶은 K-관광 섬 육성 사업 주민 설명회를 지난 10일 명도 삶 문화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민설명회는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앞서 향후 4년간 추진될 사업계획에 대해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시행했다. 이날 말도·명도·방축도 주민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K-관광섬 육성 사업 △홀로그램기술 사업화 실증지원 사업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 지원센터 구축 등은 중앙부처에서 미온 및 부정적인 반응이나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섬을 연결하는 해상인도교 및 트래킹 코스 조성사업과 연계한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을 위한 방안 및 주민 협조사항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K-관광 섬 육성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삼관광과 K-컬처를 융합한 대표 관광섬을 육성하고자 올해 처음 실시한 공모사업으로, 시는 '하늘 트래킹을 통해 즐기는 특별한 휴식과 모험'이라는 계획안으로 최종 선정돼 4년간 총사업비 115억원을 지원받는다. 사업계획안으로는 캠핑장 조성, 해안탐방로, 청년예술인 놀이터 등 콘텐츠와 휴게소·화장실·숙박 리모델링 등 기반시설 조성, 글로벌 메타버스·노을명축제·깃발축제 등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군산=이재춘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